

과학적 실재론과 사회종[†]

- 국가정체성의 과학철학적 해석 -

김 유 신* · 김 유 경**

SSK국가브랜드 연구에서 국가란 사회종이다. 이 사회종의 정체성과 지시 문제는 과학철학과 사회과학철학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다. 이 논문에서 수행한 연구는 철학적 연구로 국가 브랜드의 토대를 다루고, 자연종 개념을 사회종으로 확장하여 실재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려 한다. 이러한 해석에 있어 보이드의 항상적 속성다발 지시이론을 이용할 것이며, 그러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 또는 비판 가능한 문제들을 제시하여 그것들에 대한 답변을 통해 사회종의 실재론적 해석을 옹호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가정체성이란 개념을 충분히 실재론적으로 논의 할 수 있음을 드러내려 한다.

【주요어】 항상적 속성다발 지시이론, 보이드, 국가정체성, 자연종, 사회종, 동적 명목론, 해킹

접수완료: 2013.5.14/심사완료 및 게재확정: 2013.6.3/수정완성본 접수: 2013.6.12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 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285).

* 부산대학교.

**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1. 서론

사회종을 실재론적으로 해석을 하기 위한 논문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연구도 적다. 이 연구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주요한 사회종 개념인 국가정체성의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 실재론자들에 의해 수행된 자연종에 대한 성과는 사회종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반면에 해킹은 존재자 실재론자로서 구성주의나 정적 명목론과는 달리 자연종의 핵심 개념은 자연의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소위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종들을 자연종으로 취급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는 자신의 논문에서(Hacking, 1986:78) 1) 많은 범주들은 인간정신으로부터가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온다, 2) 우리의 범주는 정적이지 않다는 두 논제를 받아들이고 정적 명목론을 치유하기 위해 동적 명목론을 제안한다. 이 두 논제에 덧붙여서, 동적 명목론은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점점 더 인지되는 인간종이 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인간종이 발명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종, 인간종에 관한 범주는 만들어지는 것으로 본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정적 명목론은 모든 범주들, 클래스들, 분류법들이 자연에 의해 주어진 다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의해 주어지고, 이러한 범주들이 인간종의 여러 영역을 통해 고정된다(Hacking, 1986:78)고 주장한다. 해킹이 주장하는 것은 ‘자연종’이란 범주는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온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에 해킹은 자연종에서 대해서는 실재론적 입장을 취하나, 사회종에 대해서는 명목론을 취한다. 그는 사회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추측한다. 수많은 가족 유사성 명사들은 그것들이 ‘비-자연적 방법’으로 적용하는 대상들을 모은다. 즉 그것들은 사회적 요소에 의존하고, 사회적 속성으로 이름붙인 정신에서, 적절하게 사회종이라고 불리어 질 것이다. 대다수 ‘인간종들(human kinds)’은 —사람들의 종 그리고 그들의 행태— 자연종이라기보다는 사회종이다(Hacking, 1991:123). 그리고 그 사회종은 구성주의적이며 명목론적이라고 주장한다. 해킹의 동적 명목론이 참이면, 사회이론을 실재론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

사회이론을 실재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면, 사회이론은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우리의 임의적 구성이거나 도구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적 세계의 존재자와 구조, 사회적 메커니즘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해킹의 동적 명목론과는 달리, 자연종에 대한 실재론적 지시이론을 사회적 존재자에 해당되는 사회종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려 한다.

먼저 최근의 주요 지시이론을 다루고, 자연종의 지시에 성공을 거둔 보이드(Richard Boyd)의 항상적 속성다발 지시이론(homeostatic property-cluster theory of reference)을 사회종에 적용할 것이다. 사회종을 실재론적으로 해석할 때, 여러 비판들이 가능하다. 이들을 소개하고, 적절한 반박을 통해 실재론적 사회종 개념을 옹호한다. 사회종과 과학적 실재론의 연구는 아직 일천하고, 한국에서도 이제 시작인 것 같다.

2. 과학적 실재론

사회종과 관련된 사회의 구조나 본성은 과학을 통해 다가갈 수 있는 실재적인 것들이라는 것이 과학적 실재론의 입장이다. 과학적 실재론의 입장은 대략 다음의 2가지 주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 1) 세계는 정신과 개별관찰자의 언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 2) 성숙한 이론은 이 세계를 전형적으로 지시한다.

물론 이 주장들은 과학철학의 산물이고 사회이론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의 구조나 형성과정, 본성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않지만 사회적 탐구의 본성이 무엇이며, 이론과 세계와의 관계를 제시해 주는 중요한 진술이다. 실재론은 경험주의나 구성주의자와는 달리 원자나 전자 같은 관찰 불가능한 자연의 이론적 존재자나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국가나 국가체제, 자본주의, 민주주의 같은 사회적 이론적 존재자들을 실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론의 변화 혹은 그것들을 취급하는 이론이나 기술(description)이 변하더라도 이론에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다. 그러나 실재론은 그것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또는 그것들이 어떻게 행위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과학자 또는 자연과학

자들의 임무이지 철학자들의 임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위에서 말한 실재론의 2가지 주장을 사회종과 관련하여 간단히 살펴보자. 첫 번째 주장은, 실재론자는 관찰 가능한 것이든지 관찰 불가능한 것이든지 관계없이 세계를 우리의 정신에 독립적인 존재자로 본다는 것이다. 물질세계가 우리의 지식에 독립해 있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어도 무엇인지는 비교적 자명한 것처럼 보인다. 물질세계는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도 있었고 내가 관찰하지 않더라도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상 받아들이기 극히 어려운 일은 아니다. 물론 구성주의자나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사회적 구조나 사회종이 우리 정신에 독립적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없는 국가, 민주주의, 자본주의, 동성애자 등등의 사회종은 존재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¹⁾ 왜냐 하면 이들은 우리에게 의해 탄생되고 우리의 관념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물론 실재론자들은 이러한 사회종도 실재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이 점은 나중에 이야기 할 것이다.

두 번째 주장은 보이드의 주장이다(Boyd, 1983). 실재론적 지시이론은 기술(description)이론과 구성주의 또는 관계적 지시이론과 더불어 최근의 지시에 관한 논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과학적 실재론의 지시이론은 어떻게 우리의 정신과 언어가 세계에 접속하는가라는 인식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시이론은 “원자” 혹은 “국가” 같은 이론 용어가 고정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진리는 항상 성공적인 지시를 함축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지시이론은 우리가 지식과 진리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결정한다. 여기서는 기술적 지시이론과 구성주의 또는 관계적 지시이론이 무엇인지를 설

1) 사과가 원자의 배열로 환원될 수 있듯이 국가, 민주주의, 자본주의, 동성애자 등등의 사회종도 개인의 배열로 환원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실재론자는 고도의(highly) 비환원적 실재론을 지닌다. 실재론자는 사과가 원자의 결합이지만, 사과는 원자의 결합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닌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사회종도 단순히 개인의 결합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요소를 지닌다. 동성애자는 사회구성적 관점과 유전적 관점이 얹혀져 있다.

명함과 동시에 그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실재론적 지시이론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옹호하고자 한다.

다음 세 가지 지시이론은 최근의 지시에 관한 논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는 러셀이 중요 주창자였는데 경험주의 전통에서 오랫동안 정통성을 누려온 기술이론(description theory)이다. 이 이론은 직접적으로 대상에 의해 결정된다고 논변하는 초기 실재론자들의 “순진한” 또는 “그림” 지시이론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응하여 나온 이론이다. 그림이론의 난점은 동일한 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기술들 간의 의미에 있어서의 차이가 우리가 대상에 연결시키는 단어의 임의성을 해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것은 “대만은 중국을 배반한 지역이다.”와 “대만은 독립국가다.” 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Wendt, 1999:53). 이것은 지시체(reference)와 뜻(sense)의 구별과 관련 있다.

프레게는 “뜻”의 관념을 도입하여 지시체(reference)와 뜻(sense)을 구별했다. 프레게에 의하면, 용어의 의미는 그 용어에 관련된 속성들에 의해 결정되고, 의미는 지시체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고양이”의 의미는 “4개의 다리를 가진 고양이과(科)의 우는 동물이다.”라는 기술에 의해 주어지고, 그리고 이것들이 고양이의 지시체를 결정한다. 이 관점에서는 의미와 진리는 언어 내부에 있는 기술들의 함수이지, 단어와 실재 사이의 관계들이 아니다(Devitt and Sterenlny, 1987:51-52). 그렇다면 기술(description)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만약 기술이 세계의 대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우리 정신의 발명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는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기술 이론가들은 경험주의자의 방식을 따라 기술을 관찰에 기초를 둬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 관찰은 그들에게는 감각자료에 해당된다. 그들의 관점에서 관찰은 분석적 진리와 같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특권적인 인식론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 “고양이”의 의미에 “우는 것”을 포함하는 것은 우리의 지각 속에 고양이가 울기 때문이다. 경험주의자의 회의적 인식론을 따라 기술 이론가들은 이러한 지각을 인식주체 독립적인 바깥에 있는 존재자의 결과들로서보다는 감각자료로서 취급한다. 퍼트남은 지시체를 궁극적으로 외부세계에 기초시키는데 실패하는 한 기술 이론을 일종의 인식론적 관념론으로 본다(Putnam,

1975:208-209). 기술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난점은 대상에 대한 틀린 기술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 대상을 성공적으로 지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의 기술이 변하면, 그 기술들이 지시하는 추정적인 존재자도 바뀐다. 태양에 대한 코페르니쿠스 이전 학자들의 기술과 우리의 기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가 지시하는 태양과 동일한 태양을 지시하고 있었는가라고 질문하면 기술 이론가들은 “아니오.”라고 할 것이다. 퍼트남은 이 점을 그의 “의미의 의미(meaning of meaning)”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의미는 단어와 외부세계와의 관계를 다루는 어떤 것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둘째는 기술 이론의 경험주의에 반대하는 구성적 지시이론 또는 관계적 지시이론이다. 관계적 지시이론은 소쉬르의 구조주의적 언어학에 뿌리를 두고 포스트모던 인식론의 기초를 형성한다. 이것은 의미는 단어가 이해될 때 마음에 즉각적으로 현전한다는 경험주의적 관점을 거부하고, 대상의 의미는 그 자체의 본질적 속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 안에서 그것들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즉 의미는 한 담론 안에 있는 차이의 관계들에 의해 생산된다. 예를 들어 “개”의 의미를 배우는 것은 우리의 언어 안에서 “개”의 역할 또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향(signifying disposition)”을 배우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실재는 의미와 참의 결정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 실재는 담론 안의 권력관계들과 그 외의 다른 사회학적 요소들에 의해 지배된다.

구성적 지시이론도 이와 유사하다. 지시 대상은 공동체의 사회적 구성에 의해 결정되거나 이론이 대상의 의미나 지시를 결정한다. 쿤이나, 파이어아벤트 같은 구성주의 철학자들이 이러한 대표적 이론가들이다. 이 이론은 용어의 지시 대상이 이론을 넘어서서 연속성을 가지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약점을 지닌다. 이 지시이론에 러더퍼드의 원자와 보어의 원자 그리고 현대의 원자는 서로 다른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지 같은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학 이론의 발전과 연속성을 설명할 수 없고 우리의 직관에도 맞지 않다. 러더퍼드의 원자이론이나 보어의 원자이론, 현대 물리학이 가르치는 원자이론은 모두 같은 원자를 지시하고 있으나 원자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를 뿐이다. 또한 구성주의나 포

스트모던 이론에 의하면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에 의해 연구되어진 태양은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에서 다루는 태양과는 서로 다른 것이 되어 버린다. 이것을 우리의 직관으로 납득하기는 힘들다. 이 이론의 또 다른 문제는 대상에 대한 표상의 실패나 잘못된 표상은 다룰 수가 없다는 것이다. 세계와 대응되지 않는 표상을 할 경우 대상의 저항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토끼는 날 수가 없다. 그것은 날 수 없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연이 날도록 대응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헬리콥터는 공동체나 사회적인 권력관계에 의해 아무리 정교하게 구성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헬리콥터는 그것을 지배하는 원리가 자연 세계와 대응되기 때문에 날 수 있는 것이다.

실재론자의 인과적 지시이론은 위의 두 지시이론의 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 이론은 크립키와 퍼트남에 의해 제안되었다.(Kripke, H., 1972, Putnam, H., 1975) 이 이론에 의하면, 용어의 의미는 두 단계로 결정된다. 먼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새로운 대상에 이름이 붙여지는 소위 “세례식”이 있고, 그 다음으로 이름과 대상 간의 이러한 연결이 화자들의 인과적 연쇄에 의해 오늘날의 화자에게 전수되어 와서 우리는 그 이름과 대상 간의 연결을 알고 사용한다. 이것은 기술이론과 관계이론의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즉, 우리의 기술 내용이 틀리고 변하더라도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우리의 능력은 세계가 어떤 표상에 저항함에 근거한다. 정신과 언어가 의미를 결정하는 데에 도움을 주지만 의미는 역시 정신 독립적인, 언어 외적 세계에 의해 규제된다. 인과이론에 깔려있는 것은 세계가 개, 물, 원자들 같은 “자연종들”을 포함한다는 존재론적 가정이다. 자연종은 자기-조직적이며, 인간의 관습이나 사회적 규약이기보다는 오히려 본래적이고, 정신 독립적인 구조에 의해 구성되는 인과력을 갖는 물질적인 존재자이다. 과학의 임무는 이러한 자연종과 일치하는 지식을 산출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은 날고 싶지만 사회적 규약을 아무리 정교히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정교한 기술이론이라 하더라도 하늘 위를 날게 할 수는 없다. 중력을 극복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날 수 있다. 개가 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본성 속에 나는 것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순수한 형태에서 인과적 지시이론은 자연종에 가장 잘 적용된다. 그러나

사회종을 다룰 때에는 기술이론이나 관계이론의 요소가 포함될 수도 있다. 이것은 나중에 다룰 것이다. 인과이론의 문제는 많은 자연종들의 경계를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그들의 본질적 속성을 명시하기가 힘들거나 또는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이다. 로크가 자연에서의 차이란 종류라기보다는 정도의 문제라고 논의한 것처럼, 최근의 포스트모더니스트나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은 성 차이(gender difference)처럼 사회가 한 때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들이고 정치적으로 협약 가능한 것들이라고 논증하기 위하여 이 모호한 경계의 존재를 잘 이용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실재론자에 의해 인지된 문제들이 있다. 보이드가 지적했듯이, 종 분화는 부모종과 출현하는 종들 사이의 중간인 일탈적인 경우에 의존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시의 미결정은 진화론의 한 함축이 된다. 인과적 지시이론은 고유명사나 본질을 갖는 자연종에는 잘 적용된다. 예를 들면 물의 본질은 H_2O , 금의 본질은 Au와 같이 그 본질이 잘 정해지는 자연종에서는 잘 적용된다. 그러나 생물학적 자연종, 사회과학에서 다루는 사회종, 도덕적 주장에 대한 지시에 관해서는 그 자체로서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의 지시체는 일종의 항상적 속성다발(homeostatic property-cluster)에 의해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다발들 안에 있는 개별적인 요소들은 본질적이 것이 아닐 수 있고, 이 다발들은 지시체의 결정에 필요충분조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핵심은 있지만 경계는 모호하고, 외연적으로 전형적인 어떤 유형을 지닐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속성다발의 형성은 단순히 규약적(협약적)이 아니라 인과적인 성질을 지닌다. 그렇다고 이것이 자연종에 대한 실재론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경계를 어떻게 짓는가는 사회적 삶의 영향을 받고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그것이 자연종 분류가 단순히 사회적 이해나 권력 게임에 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합의에 의해 분류하더라도 개는 고양이와 교배하여 번식할 수 없다. 개와 고양이의 분류는 그들의 자연적 본성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의 담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론이 세계를 지시하는데 있어, 관찰 가능한 용어는 인식주체 독립적인

세계의 존재자를 지시한다고 하더라도 비-관찰적, 이론적 존재자는 존재하지 않거나 불가지하다고 경험주의자는 주장한다. 반면에 실재론자는 과학이론이 비-관찰적 존재자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고 믿는다. 이것은 최선의 설명에의 추론(*inference to best explanation*, 이하 IBE)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험주의자는 IBE는 오류가 있으므로 지식을 얻기 위한 적절한 토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실재론자는 토대주의는 망상이기 때문에 IBE는 우리가 지닐 수 있는 지식추구의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주장한다.

실재론자의 IBE 주장은 다음과 같다. 과학은 성공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점차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세계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저 바깥에 있는 세계의 깊은 구조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때문이다. 만약 성숙한 이론들이 자신이 지시하는 세계의 구조와 대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들이 잘 작동하게 된다면, 이 사실은 “기적”이 될 것이다. 기적이 설명이 아니라면 그리고 더 나은 어떤 설명도 제시할 수가 없다면, 실재론자들이 주장하는, 과학의 성공에 대한 최선의 설명은 우리가 실재의 구조에 대해 점점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이론이 세계의 구조에 더 잘 대응된다는 것이다.

실재론자에 따르면, 과학자는 관찰 불가능한 현상에 대해 세례를 줄 수 있다. 즉, 관찰 불가능한 현상의 속성들을 기술하고, 어떻게 이것들이 관찰 불가능한 대상들과 관계를 맺는가에 대한 몇몇 가설을 제시함으로써 세례를 준다. 다시 말해, 실재론자는 자연과학에서건 사회과학에서건 관찰 불가능한 것을 다룰 때, 지시의 인과이론과 기술이론을 통합시키고 있다. 항상적 속성다발 지시이론이란 이러한 통합의 결과라고 생각된다.(Boyd, 1988, 1989, 1991, Psillos, 1999, 280-300) 이 세례는 종종 은유(*metaphor*)를 통해 발생하기도 한다. 보이드에 의하면 이 은유 역시 세계를 지시하는 것으로 본다(Boyd, 1979). 이러한 사회과학이론에서 이론 용어인 “국가”나 “자본주의”, “계급” 같은 것은 직접 가리킴으로써(*ostensively*) 지시할 수 없지만, 일단 우리의 사회세계의 일원으로 들어온 이상 실재론자에게는 이들이 사회과학자들과 독립하여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학적 논쟁이나 이론의 선택은 이데올로기의 선택 또는 형이상학적 실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세계에 대응되는 이론의 선택 문제이다.

3. 항상적 속성다발 지시이론²⁾

이 지시이론은 보이드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자연종이나 은유 등의 표현에 잘 적용된다. 그리고 도덕적 사실에 대한 실재론적 해석에도 잘 적용된다.(Boyd, 1988, 181-228) 보이드는 해킹을 비판하면서 이 지시이론을 사용한다. 해킹은 이 비판에 답변하면서, 이것이 러셀 이후의 가장 훌륭한 지시이론이며 러셀이 기뻐할 것이라고 칭찬한다.(Hacking, 1991b 참조)

자연종 용어나 은유적 표현 등은 일상 언어 전통에서 정의되기 때문에, 엄격히 형식주의적인 실증주의적 개념들에 의한 인위적 정확성과 대비해 볼 때 모호하고 불명확하다. 그러나 이러한 “불명확성” 또는 “모호함”은 일상 언어적 용법에서 제거해야 할 불완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벽하게 적절한 특징으로 간주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물이나 금은, 물= H_2O , 금= Au 같이 필요충분조건으로 정의될 수 있지만, “일상 언어”사용의 전통에서는 자연종에 대해 필요충분조건들을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종의 정의를 위해서 비자연적인 속성다발 또는 판단 기준적 속성 이론들을 사용한다. 이 때, 어떤 종의 정의를 위해서 그 종어를 지시하는 용어 아래 어떤 속성다발을 포함시켜야 충분한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모든 것을 포함할 수는 없다. 속성다발의 범위 그리고 그 속성다발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가는 개념적이고 선험적인 문제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정치(精緻)하기 보다는 “성기게 짜여진(open textured)” 속성다발로 구성된다. 그리고 속성들의 판단기준도 불확정적이다. 따라서 일반 언어 전통에서의 정의는 모호성, 불충분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의들은 지시기능을 충분히 수행한다.

일상 언어 전통에서 보이는 모호하고 유사한 정의들을 가진 용어들은 복잡한 현상들을 연구하는 특별한 과학들에서도 사실상 흔히 사용되고 있다. 보이드는 항상적 속성다발 지시이론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요약하여 표현한다.³⁾

²⁾ 이 부분은 보이드(1979)를 주로 참조했다. 인용표시는 생략했다.

³⁾ 아래 내용은 주로 보이드(1979)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이다. 각주를 달지 않

1. 상당히 많은 경우들에 있어서, 함께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자연에 우발적으로 때를 이루고 있는 속성들의 가족 F 가 있다.
2. 그것들의 동시 발생은, 적어도 전형적으로, 일종의 항상성이라고 은유적으로 (때로는 문자 그대로) 평해질 수 있는 것의 결과이다. F 속에 있는 속성들 일부의 현존이 (알맞은 조건들 하에서) 다른 것들의 현존에 호의적인 경향이 있거나, F 속에 있는 속성들의 현존을 유지시키려는 경향이 있는 숨은 메커니즘들 또는 과정들이 있거나, 아니면 둘 다이다.
3. F 속에 있는 속성들의 항상성 다발은 인과적으로 중요하다. 즉 문제되는 숨어있는 (일부 또는 전부의) 메커니즘들에 의해 F 속에 있는 (많은) 속성들이 동시 발생하는 (이론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중요한 결과들이 있다.
4. F 속에 있는 속성들의 항상적 속성다발 대부분이 발생하는 그러한 사물(事物)들에 적용되는 하나의 종류 용어 t 가 있다.
5. t 는 하나의 분석적 정의를 가지거나, 혹은 오히려 항상성 다발 F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것 아래에 놓여져 있는 메커니즘들의 전부 또는 일부와 함께, t 의 자연적 정의를 제공한다. 정확히 말해 어떤 속성들과 메커니즘들이 t 의 정의 속에 속하느냐 하는 문제는 후천적인 문제이다. 즉 종종 어려운 이론적인 것이다.
6. 불완전한 항상성은 법칙적으로 가능하거나 실제적이다. 즉 어떤 사물은 F 속에 있는 속성들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드러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적절한 숨어있는 항상성 메커니즘들의 전부가 아닌 일부가 존재할지도 모른다.
7. 그러한 경우들에서, 그 사물이 t 아래에 속해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만약 그것이 조금이라도 결정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의 그리고 F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의 상대적 중요성은 개념적인(선험적인) 쟁점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이론적인 쟁점이다.
8. 게다가 모든 관련된 사실들과 모든 참된 이론들이 주어진다고 가정할

았다. 그리고 보이드(1989, 1991)에서도 항상적 속성다발 지시이론을 많이 다루고 있다. 참조.

때조차도 해결될 수 없는 외연적 모호함을 가진 많은 경우들이 있을 것이다. F속에 있는 속성들 중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또는 관련된 항상성 메커니즘들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가 작동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분법적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어떠한 이성적 고찰들도 그것들이 t 아래 분류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설명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다.

9. 유관한 배경에 놓여있는 항상성 메커니즘들과 함께 항상적 속성다발 F의 인과적 중요성은 t에 의해 지시되는 종이나 속성은 과학적 설명을 위해 또는 성공적인 귀납적 추론들의 공식화를 위해 중요한 하나의 자연종 지시라는 그러한 것이다.
10. 의미심장하게 덜 확장적인 모호한 용어에 의해서 t를 대체하는 용법의 어떠한 세련화도 지시된 종의 자연성을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떠한 그러한 세련화도 인과적 설명이나 혹은 귀납에 부적절한 중요한 구별들로 우리가 취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바로 이런 식으로 중요한 유사들을 무시해야 한다고 요구할지도 모른다.
11. t를 정의하는데 도움이 되는 항상적 속성다발은 단순히 독자적 외연을 가지는 방식으로 개별화되지 않는다. 대신에 속성다발(타입 또는 토큰)은 역사적 대상 또는 과정처럼 개별화된다. 즉 속성다발 속에서 또는 숨어있는 항상성 메커니즘들 속에서 시간에 걸쳐서 (혹은 공간 속에서의) 변화가 있지만, 정의를 내리는 다발의 동일성을 간직한다. 그 결과로, t 아래 속하기 위한 조건들을 결정하는 속성들은 시간 (또는 공간)에 걸쳐서 변할 수도 있다. 반면에 t는 계속해서 똑같은 정의를 가진다. 속성다발 정의가 개별화되는 점에서 이 역사성은 t가 사용되는 그런 학문 분야들 속에서 방법론적인 고찰들에 의해서 스스로 지시를 받는다. 즉 속성다발의 역사적 전개 속에서 일어나는 관련된 적절한 연속성들에 대해 인식하는 것은 학문 분야의 귀납적이고 설명적인 작업들에 중대하다. 따라서 속성다발을 위한 개별화 조건들의 역사성은 t가 지시하는 종의 자연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나[보이드]는 정의 속에 있는 이런 종류의 변화성이 1부터 10까지 만족시키는 종들과 종 용어들의 전부에 대해 통용될 것이라고 마음에 그리지는 않는다.

보이드는 11이 실패하는 그런 경우들조차도 “항상적 속성다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제안한다.

속성다발을 통해서 지시하는 것이 지니는 약점은, 하나의 속성만 변하더라도 지시의 정의가 달라져 가능세계 그리고 현실적인 자연종이나 사회종, 인간종 등을 지시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항상적 속성다발 지시이론은 비록 정의하는 용어 아래 포섭되는 대상의 속성이 변하더라도 그 속성들의 발생이 인과 의존적이기 때문에 지시 대상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속성다발 이론의 약점을 극복하고, 퍼트남, 크립키 유형의 인과적 지시 상황의 가변 속에서도 지시체의 연속성을 보존한다는 점에서 인과적 지시론의 약점도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항상적 속성다발 종에는 자연종들, 즉 생물학적 종들의, 패러다임 경우가 예들로 포함된다. 생물학에서 귀납과 설명을 위한 어떤 특정 생물학적 종의 적합성은 자신의 일원들에 부여되는 불완전하게 공유된 그리고 항상성과 관련된 형태학적, 생리학적, 행태적(behavioral) 특징들에 달려있다. 종을 한정시키는 속성다발과 항상성 매커니즘들은 역사적 변화 속에서 사회종들을 역사적 실재로 비외연적으로nonextensionally 개별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항상적 속성다발 이론은 이론 구성적 은유의 의미론, 다른 언어학적 표현들 행동과학, 사회과학의 이론용어들, 특히 사회종 지시 이론으로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4. 국가 정체성과 항상적 속성다발 지시이론⁴⁾

국가의 정체성은 역사적으로 많이 변해왔다. 현대의 국가 개념은 과거의 국가 개념과는 다르다.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들도 다르다. 비록 17세기 자본주의, 19세기 자본주의, 현대 자본주의 등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서로 다른 자본주의를 지시하는 것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즉 자본주의라는 개

4) 이 부분에서 국가 정체성 부분은 사회과학협의회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에서 김유신이 발표한 논문 “SSK국가브랜드 연구에서 나타나는 융합과정”(김유신, 김유경, 2013년 5월 16일)에도 이 부분이 나왔다.

념은 우리가 초이론적으로 사용한다. 국가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시대가 바뀌어 자본주의가 지니는 속성들이 밝혀지고 작동하는 사회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현하는 속성들이 달라질 뿐이다.

실제로 우리가 자본주의를 논의할 때, 자유방임적 이데올로기에 지배된 자본주의, 케인즈주의 자본주의, 최근의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 등을 취급할 때 이들을 서로 다른 자본주의로 보아서 비교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자본주의이기는 하지만 각각이 지니는 속성이 달라진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여러 형태의 역사적 환경 속에서 정치제도를 설명할 때, 지시체의 의미 변화 없이 단지 그 속성이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으로 사용한다. 이는 물리학에서 “전자”의 개념이 역사적으로 톰슨의 전자 개념에서 러더포드의 전자 개념, 보어의 전자 개념, 양자역학에서의 전자 개념 등으로 변해왔지만, 이는 동일한 전자를 지시하지만 더 많은 속성이 발견되고 잘못 이해된 속성들이 사라진 것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즉 전자를 구성하는 이러한 속성들이 출현하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것들로 서로 인과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재론적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국가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 차원을 지닌다. 역사적 영토, 공통의 신화, 역사적 기억, 공통의 대중문화, 공통의 언어 등이다(Smith, 1993). 따라서 국가의 정체성을 파악하려는 작업은 학제간 학문이거나 다학문적인 영역이다. 이 점은 물리학에서 전자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것보다 좀 더 복잡하다. 자본주의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여러 차원을 지니지만, 신화 같은 상상적 개념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가의 정체성보다는 비교적 단순하다.

사회종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내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어떤 것으로 “국가”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정체성이 고차적으로 존재자가 지니는 속성으로 구성된다고 하면, 그 속성들은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정체성도 변한다. 이 변화 속에서 동일한 사회적 존재자가 되려면, 그러한 변화 속에서도 어떤 연속성을 지녀야 한다.

보이드는 그의 항상적 속성다발 이론에서 그 속성들은 서로 규약적 관계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발생적, 인과의존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항상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연속성을 인정하려 한다.

국가는 현존하면서 그 모습이 변한다. 민족이나 종족적 성격(ethnicity) 같은 것은 실제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상당한 부분은 인위적 구성이다 (Anderson, 2006). 우리나라의 경우 Land of Morning Calm이 보다 본원적인 우리의 정체성이었다면, Dynamic Korea에 내재된 ‘Dynamism’은 인위적으로 구성된 정체성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김유경·김유신·박성현, 2010) 그러나 이러한 구성은 가변적이지만, 여기서 구성적 인과 의존적인 역사적 인과성을 찾아내어 연결한다면, 그 역시 국가란 안정된 개념으로 항상성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안정성은 대개 국가 사회공동체가 인정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임의적 자기 이해(利害)를 위한 합의보다는 역사적 사실, 정치경제학적 사실 등을 토대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대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장하려는 노력은 구성적 정체성을 지나치게 임의적으로 본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의 정체성은 허위 사실에 기초하기 때문에, 과거와 동일한 정체성을 지닌 중국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국가 역시 단일한 역사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복합적 역사를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Smith, 1993). 이 경우에는 당연히 역사의 취사선택과 구성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강조하게 될 때 우리는 국가를 사회적 구성이라 부를 수 있으며, 그러한 역사를 구성 또는 취사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임의적이지 아니라, 역사학자들의 공동체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중국의 동북공정은 중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지 않아 오히려 중국의 정체성의 변화를 초래할 뿐이라는 즉 지시의 연속성에 타격을 입혀 중국의 국가 개념에 해를 초래할 노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역사가 긴 경우 국가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상호 연결된 한 방식으로 바르트(Barthes, R., 1957)의 신화개념은 유용하다. 그에 의하면, “신화”는 하나의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세계에 대한 대중-문화를 영속적으로 지지하는 지지대이며, 그 신화는 시대를 관통하여 내려오고 끊임없이 재해석이 된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신화나 혹은 신화시대에 밀접한 이야기들을 토대로 한 국가의 정체성 표현을 위한 슬로건 사

용은 의미가 있고 실제로 여러 국가는 그것을 사용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론적으로 많은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오늘날, 국가 정체성을 위한 신화적 건축물은 그 현상의 다면적이고 복잡한 구조의 출현에 의해 도전을 받으며, 결과적으로 국가를 브랜딩 하는 전략의 내용을 표상하는 국가적 정체성에 대한 아이디어는 엄밀하게 질문돼야 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학이나 관련 영역 부분에서 명성 있는 학자들은 국가 정체성(national identity)이 오히려 민족 국가(the nation state)의 부속물 중 하나이고, 동시에 이 둘 다 급속히 사라져버리는 현대성의 세계(the world of modernity)에 속한다고 논증한다.(Eagleton, 2000).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국가 간의 경계와 모국이라는 것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극복될 수 있는 편의상의 개념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점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주장은 현실적으로 수많은 개인들이 국가에 기초하여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있고, 동시에 이러한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의 식이 현실적 개인들의 삶에서 지니는 연속성, 그리고 역사에서 지니는 연속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쉽게 간과할 수 있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라는 사회적 존재는 국가에 속하는 인간적 존재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미래에 대해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가 바로 국가의 정체성을 구성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국가의 정체성은 고정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구성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항상성을 지니는 국가의 정체성은 구성주의적 관점과 달리 실재론적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국가는 영원하지도 않고, 또한 국가의 구성요소는 변하기 때문에 국가 정체성을 어떤 영속적인 속성을 사용하여 파악하려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국가란 구성원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주며, 구성원이 보호하고 충성해야 할 어떤 것으로 파악되고, 나아가서 구성원들의 삶의 의미 형성에 기반 역할을 하므로, 구성원의 미래를 형성하는 것은 국가를 재구성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는 현존하면서 현재를 초월해 있는 가상적 공동체(imagined community)역할도 한다(Anderson, 2006).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가의 정체성은 다분히 가변적이고 눈앞에 보이는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구성되는가 하면, 보편적 인간에라는 더 넓은 비전을 가지고, 또는 더 큰 목적을 위해 정체성을 구성하기도 한다. 팍스 로마나(Pax Romana)나 팍스 브리태니커(Pax Britannica)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관광산업을 위한 브랜딩을 목표로 하여 국가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눈앞의 단견적이며 실용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그 때 정체성을 이미 검증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들을 무시하거나, 역사라는 사실을 토대로 하는 과학정신을 무시한 채로 구성해서는 안 된다. 국가정체성에서 구성적 성격이 있다고 하여 실용적이며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국가 정체성을 구성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을 허위로 만드는 일보다는 보다 영속적이고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노력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가의 브랜딩을 관광차원에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관광 브랜딩을 국가정체성의 하위개념으로 운영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사회종에 대한 여러 비판과 답변

사회종이란 것은 사회과학이론에서 종종 나오는 것으로 사회제도, 역사적 사건, 우리 인간종 등이다. 예를 들면, 동성애, 어머니, 국가, 자본주의, 산업혁명, 민주주의 등이다. 비록 실재론의 논증을 받아들인다하더라도 이것은 자연세계에 관한 것이지 사회과학의 영역에까지 확장하려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저항이 있을 수 있고, 또 있기도 하다.

이 절에서는 사회종이 자연종과 다른 점을 이야기한 다음, 비록 이 차이점들이 아주 중요하고 실제적이며, 사회과학자들이 때때로 지시의 기술이론과 관계이론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사회과학에 대한 실재론적 견해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 즉 사회종의 실재론적 해석에 대한 비판을 다루고 그러한 비판들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다음에 나오는 일곱 가지는 사회종의 실재론

적 해석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필자의 변론이다.⁵⁾

1) 사회종은 어떤 특정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시가 그것들의 정의에 한 부분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자연종보다 더욱 더 시간-특수적이다(time-specific). 예를 들어, 산업혁명은 19세기 유럽에서 일어났던 기술적 능력의 변혁이다. 꾸준히 발생한 산업상의 혁명의 역사에서 산업혁명은 19세기에 일어난 우연적, 역사적 사건의 한 예로서 탐구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19세기의 유럽이라는 맥락이 산업혁명을 정의하거나 또는 산업혁명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본질을 구성한 것이다. 즉 산업혁명은 우리의 구성인 것이다. 따라서 자연종과 달리 산업혁명이라는 사회종은 초역사적 종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참들은 특별한 시·공간적 맥락에 의존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상대적이다(Wendt, 1999:69)⁶⁾. ‘자본주의’라는 용어도 역사적으로 탄생된 것이며, 초역사적이 아니다. 그것은 시대에 따라 그 성격이 다르다. 특히 초창기 마르크스가 비판한 자유방임적인 자본주의와 대공황 이후 정부가 개입된 형태의 현대 자본주의는 그 성격이 많이 다르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초역사적이 아닌 시간-특수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차이는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경험주의자는 과학이 자연적인 참들에 근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과학’을 배제하려 할지 몰라도 실재론자는 그렇지 않다. 실재론자의 과학적 설명은 인과적 메커니즘들의 서술을 강조하지, 보편적 법칙들로부터의 연역을 강조하지 않는다. 그리고 초역사적이지 않은 이론들도 과학적이다. 왜냐하면 실재론자는 “산업혁명”을 모든 시대에 관계없이 일반화시키지 않고도, 산업혁명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를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과학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산업혁명을 “기술혁명”으로 알려진 더 넓은 사회종의 한 예로서 그것에 대한 초역사적 주장들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정치적 실재론이나 국제정치학의 다른 이론들이 시·공간에 걸쳐 일반화될 수 있는가

5) 1)번은 웬트의 책, Wendt, 1999을 참조.

6) 웬트는 이 부분은 바스카(Roy Bhaska, 1979)가 제안한 것이라고 한다.

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적절한 종들의 본질적인 특징들이 보존된다면, 그것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고대 아시아의 국가 간 국제정치 문화와 현대 아시아의 국가 간 국제정치 문화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외교사나 국제정치학에서 그들 국가 간의 관계를 국제정치학의 주제로 다룰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는 있다. 고대 아시아, 고대 그리스 국가에서 지금과 체제는 다르지만 국가라고 취급할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다. 물론 그것은 이러한 사회종들에 대한 과학적 탐구에 의해 답해질 수 있는 경험적 질문이지, 철학적 명령에 의해 선형적으로 답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회종들의 잠재적인 시·공간의 특수성을 사회과학에 대한 실재론의 문제점으로 볼 필요가 없으며, 특정한 시간이나 공간에 구체화되더라도 우리는 실재하는 종으로 취급할 수 있다. 즉 산업혁명은 우리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의존적인 문화적 변수로서 우리가 구성하는 국가에 부착된 구성적 의미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2) 자연종과 달리 사회종은 사회적 구성이다. 시간과 장소가 변함에 따라 달라지는 인간의 실천들에 근거하고, 또한 어떤 인식의 틀을 받아들임(전제함)으로써 사회종의 존재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마녀를 생각해보자. 만약 사람들이 마녀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를 멈춘다면, 마녀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종들은 믿음과 행위의 기능이다. 이 견해는 사회종들이 인간에 독립적이 아니라는 견해를 강화한다(Wednt, 1999 참조, 웬트는 이것을 바스카의 제안이라고 이야기 한다).

3) 자연종과 달리 사회종의 존재는 행위자들이 지니는 서로 맞물리는 믿음들, 개념들 혹은 이론들에 근거한다. 예를 들어, 자연과학 이론의 관찰 불가능한 존재자에 대해 실재론적 태도를 취하는 해킹은 푸코의 작업을 언급하면서 19세기에 고안된 “동성애”란 범주는 성행위와 관련하여 단지 동성애자를 이성애자와 같이 하나의 생물학적 사실로 환원할 수 없고, 동성

애와 연관된 사회적 가능성들을 창조하거나 “구성하는(make up)”데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한다.(Hacking, I. 1986, 참조) 이것은 마녀, 의사, 국가들에도 해당된다. 그것들을 구성하는 공유된 관념들의 출현이 있기 전에는 이러한 사회종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과학의 대상들이 마음과 담론에 대하여 독립적이라는 실재론의 핵심 가정을 손상시킨다(Wednt, 1999, 참조, 웬트는 이것을 바스카의 제안이라고 이야기 한다).

4) 인간종은 너무 독특하여 범주나 기술(description)의 발명(invention)으로 그들의 행위를 위한 가능 공간을 구성하고 그들 스스로를 구성한다. 그들은 가능 공간에서 어떤 가능한 궤적을 선택하고 현실적 세계에서 가능적 궤적을 실현한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 공간과 가능적 궤적을 선택하는 것은 세계에 대한 인과적 문제가 아니라 임의적이거나 규약적이다. 그것들은 세계의 인과적 구조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5) 귀납과 설명에 적합한 사회종이 되는 것은 자연적 정의를 요구하지만, 사회적 구조의 사회종에 대한 우리의 개념적 의존은 너무 깊어서 사회적 주제에 대한 귀납과 설명은 어떤 적절하고도 깊은 의미에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있다(Boyd, 1991:143).

6) 성숙한 이론들이 우리로 하여금 세계를 조작하게 하는 자연과학에서는 과학의 성공을 기적으로 만들지 않는 IBE에 근거한 실재론적 논증이 설득력 있으나 사회과학에서는 덜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사회과학에서는 “강한 성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7) 자연종과는 달리 많은 사회종들이 자기-조직적이란 의미에서는 내적이며 사회적 관계들에 의해 구성된다는 의미에서는 외적인 구조를 지니는데, 이것은 단지 실재론자들이 자연종들을 설명하는데 사용하는 환원주의적 형태로는 사회종이 연구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종은 사회과학적 탐구의 모든 친숙한 대상들을 포함하고 상당히 이념적이기 때문에 “사회종”에 대한 더 근본적인 반론은 세계는 인간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는 실재론의 첫 번째 전제에 대한 반대이다.

위에서 나열한 자연종과의 차이점은 표면적으로는 실재론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보인다. 1)은 답했기 때문에 2-7번까지 답하려고 한다.

2)는 아주 간단한 문제다. 그 당시 마녀란 범주를 사용한 귀납적이고 설명적인 인식적 실천은 거짓이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것은 그 당시 관점에서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자세히 보면, 마녀란 종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귀납적 일반화에 따른 설명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명백히 정치적, 종교적 목적을 위해 임의적으로 도입되었고, 과연 마녀라고 부를만한 어떤 성향이나 본질이 있는지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 따라서 마녀는 사회종이 아니라 임의적 규약에 의한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반론이 되지 않는다.

3), 4)는 표현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상당히 유사하다. 이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기술과 범주의 도입이 우리가 되고자 희망할 수도 있는 인간종의 가능성을 열어 주고, 인간이 그 가능성을 인지하고 실현해 가지만, 그러한 종의 선택이나 선택을 통해 얻어지는 과정과 궤적이 인과적이라기보다는 임의적이거나 규약적이라는 것이다. 이 점을 자세히 고찰해 보자. 우리는 사회적 혹은 자연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작동 가능한 비-귀납적 실천을 위한 기술이나 규약을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규약을 우리의 독립적인 자연이나 사회로 돌리는 것은 거의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동성애”란 범주가 귀납적이고 설명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즉, 동성애란 성과 관련된 지속적인 특징을 지닌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는 독립적인 어떤 인간종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하며, 그 범주의 도입이 우리가 몰랐던 이 세계에 존재하는 인간종을 발견하게 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동성애란 외적인 행위만 고려하여 규약적인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전자일 경우 동성애란 범주는 우리의 믿음에 관계없이 우리와 독립적인 사회종임에 틀림없다. 이 동성애는 어떤 형태의 항상적 속성다발에 의해 지시될 수 있고, 시대와 이론에 따라서 그 속성이 바뀔 수도 있으나 여전히 그 지시를 인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 그것과 다른 사회현상과의 상호작용은 인과적 문제로 취급될 수 있다. 따라서 동성애란 범주가 출현하기 전

에는 그러한 사회종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성애란 사회종을 이용하여 실재론을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다. 만약 동성애의 출현이 우리의 규약적인 것으로 임의적인 것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 저녁 식탁을 차리는 방식 같이 동성애적 성행위를 선택하면 동성애자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해보자. 이것의 전제는 동성애가 어떤 행위 방식에 의해 결정되거나 그 행위를 인도하는 어떤 성향이나 본질적인 요소가 없는 임의적인 것이라면 명백히 사회종이 아니다. 실재론은 그러한 임의적인 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그러한 종은 과학적 탐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러한 규약적 존재자의 역할이란 주제를 탐구할 때와 같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과학에 대한 실재론적 해석이 약화되지 않는다. 그리고 동시에 사회종이 우리의 정신 독립적인 존재란 사실을 약화시키지도 않는다.

수많은 범주들의 출현이 가능하다. 이것들은 인간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희망과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들 범주를 선택한 결과, 이루어지는 것은 인과적 과정이지만 그 범주가 어떤 본질을 갖지 못할 때 그것의 역할은 아무런 귀납적, 설명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물론 때때로 범주가 실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속아 거기에 맞춰 행동할 수 있다. 이때도 그 속는 이유나 태도는 추적이 가능한 인과적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론적으로 부정이 가능한 과학적 탐구를 이데올로기나 허위의식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

5)는 사회적 대상이 복잡하여 우리의 탐구가 어렵다기 보다는 사회적 대상에 대한 분류적 실천의 결과들이 바로 세계의 인과적 구조에 주는 영향이 너무 크고, 비역사적인 사회적 지식을 배제할 만큼 불가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분류적 실천이 사회적 현상을 연구하지 못하게 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가능할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비록 분류적 실천 자체가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란 인과적이기 때문에 그 추적을 할 수 있고, 그 영향의 결과도 예측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학문적 자살 행위와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사회과학에서는 자연과학과 달리 분류적 실천

(classification practice)이 인과적으로 사회현상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이 분류적 실천은 객관적 사회를 기술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회현상에 대한 인과적 탐구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시할 때 이 정책에 대한 정보가 알려질 수 있다. 그러면 민간 경제 주체들은 거기에 미리 준비하여 반응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그 정책을 도출하는데 기여한 정부의 사회현상 이해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의 합리적 기대이론(theory of rational expectation)은 정책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미리 고려하여 정책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경제현상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정책을 펴는데 기여한다. 그것은 실제로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분류적 실천이 현재의 사회 현상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 고려하여 즉 인과과정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에서 분류적 실천에 인과적 탐구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증명의 부담은 반대자에게 지워져야 할 것이다.

6)은 사회과학에는 과연 성숙한 이론이 없을까란 질문과 관련된다. 우리는 과거보다 더 많은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힘을 가졌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실증주의자들처럼 법칙 아래로의 포섭이나 예측이 힘들다는 이유로 성숙과학이 없다는 것은 너무 비관적인 전망으로 보인다. 오늘날 우리가 성숙과학이라고 한다면 아마 물리학일 것이다. 다음에 화학, 생물학, 지질학, 의학 등으로 성숙해 갈 것이다. 사회과학은 성숙의 순서로 본다면 저 뒤에 있게 될 것이다. 사실 자연과학에 비해 사회과학이 성숙되지 못했다는 것은 누구나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학문의 성숙에 대한 기준을 논한다면, 현재로서는 예측가능과 통제가능성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들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에 의존한다. 첫째는 그 학문 영역 내의 현상을 다른 현상과 다른 학문적 차원으로부터 분리해낼 수 있는 능력을 그 학문이 소유하느냐에 달려 있다. 둘째는 실재 세계에서는 여러 학문적 경험 차원이 복잡하게 공존하는데, 탐구하는 내용 자체가 다른 경험 차원으로부터 분리해 내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것인가와 그리고 셋째,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탐구 현상을 분리해내어 반복적 재현이 가능한가에 달려있다. 물론 이 셋은 상호작용한다. 대상이 워낙 복잡하면, 학문적 능력의 획득도 매우

힘들다. 사회과학의 대상이 되는 실재란 매우 복잡하고 복잡적이며 다차원적이다. 따라서 사회종 혹은 인간종의 행태는 물질의 예측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예측을 위한 조건 등이 수시로 바뀔 수 있고, 예측될 수 있는 속성들은 사회종이나 인간종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측이나 통제가 실재를 전혀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유일하고 개성적인 원인들이 사회종 현상을 지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에는 예측이란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정치적 제도에 대해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평등, 대중의 심리, 정신적 질병, 경제 현상에 있어 화폐의 역할 등의 것을 과거보다 많이 알게 되었다. 특히 거대한 세계사회에서 경제공황이나 의사소통의 부족에 의해서 발생하는 혼란이 과거보다 적게 나타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론 같은 우리의 사회이론이 상당한 정도로 세계를 지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7)번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상 자연물은 인간이 없어도 존재한다. 그러나 사회종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의존하며 관계적임과 동시에 관념적 구조(ideational structure)를 지닌다. 많은 종류의 사회종은 독자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관계에 의해 존재한다. 그리고 사회종이 관념적 구조를 지닌다는 것은 사회종이 본래적으로 관계적이어서 다른 종들과의 우연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야기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들에 의해 구성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교수가 된다는 것은 학생들과 어떤 관계에 놓이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이 없이는 교수가 존재하기 어렵다. 사회종을 구성하고 있는 외적인 사회적 구조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종은 오직 관계적 지시이론을 통해 알 수 있다고 결론짓게 하였다. 이 경우 사회종은 어떤 본질적이고 자기조직적인 핵심을 결여하는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사회종은 대부분 우리의 관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지시에 대한 인과연쇄가 어떻게 보존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이것은 결국 사회종에 대한 객관적 지식이나 정신 독립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도록 만든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인식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즉 그런 사회종이 존재한다고 인간이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

다. 따라서 사회종이 공유된 관념적 구조(ideational structure)에 기초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지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될 수 있는데, 하나는 사회종에 대해서는 자연종과는 달리 사회적 실천, 분류적 실천과 같이 탐구 자체가 대상에 여러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는 관점과 다른 하나는 대상이 되는 사회종이 관념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관점이다. 위에서 이야기했지만, 전자는 실재론적 해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후자도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비록 사회종이 우리가 공유하는 관념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알려고 탐구하는 자의 마음 또는 담론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내재적인 힘들과 성향을 지닌 물적 토대에 기초한 자기-조직 현상들이다. 그리고 사회종을 구성하는 속성다발들은 자연적 정의로 구성되어 같이 발생하는 것들이고, 그 통일은 인과적인 것이지 규약적인 것이 아니다. 국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시대마다 국가의 특징이 다르지만, 명백한 예외를 제외하면 국가의 사법적 주권, 지역을 통치하는 능력(경험적 통치권) 등은 역사적으로 국가를 인정하는 주요한 고려사항들이다. 이것은 바로 지시의 인과이론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한 국가는 스스로 조직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만약 누군가가 관념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그 존재를 거부한다면, 저항에 부딪치고 결국 그것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역사이론이나 정치이론이 변하여 국가를 기술하는 내용이 달라지더라도 국가에 대한 지시는 이론을 넘어서서 연속적으로 보존된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민주주의 등도 여전히 이론을 넘어서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것은 그 용어들이 이론 독립적으로 대상을 지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⁷⁾

개별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 등이 있는데, “의사”, “동성애”, “어머니” 같이 사회종은 외적인 인정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즉 관계적 존재자이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자기-조직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환자가 없이는 “의사”란 개념

7) 실재론은 이론 의존적으로만 실재에 접근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론 독립적이라는 말은 모든 이론에 독립적이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이론이 변하더라도 지시 대상은 보존된다는 뜻이다.

은 존재할 수 없으나, 의사의 실천 능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비록 환자가 있다고 해도 저절로 의사란 존재가 탄생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환자가 지금 없어도 의사의 존재는 여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가능세계에서 환자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학자들에게 계급, 실업자, 노동자, 물가와 같은 사회종이나, 정치학자에게 정치시스템 같은 사회종은 객관적인 사회적 사실이다. 이들은 국민들의 믿음에 독립적이고 그 사회종에 대해 임의적 해석에 대해 사회종은 저항한다. 예를 들어 국가대리자들도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상호인정에 근거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이 일단 상호인정이 되면 그들은 서로 서로에게 객관적 사실로서 대면된다. 그리고 정치시스템은 일반인에게도 역시 독립적이다. 그들이 믿든 말든 국제적이든 국내적이든 정치 시스템의 교란이 오거나, 물가가 오르면 인간은 고통을 받는다.

6. 결론을 대신하여

사회종을 실재론적으로 해석한다면, 사회적 설명은 포스트모더니즘이나 구성주의 혹은 경험주의처럼 주관적이거나 상대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이다. 사회종은 비록 관념적 구조를 지니지만, 항상적 속성다발 중으로 자기-조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독립적인 역할과 저항 등을 통해 이론을 규제한다. 따라서 사회과학 이론의 중요한 공헌은 사회적 세계에 존재하는 사회종을 발견하는 것이고, 사회이론의 탐구나 선택은 사회세계에 대응되는 객관적이고 참된 이론을 선택하는 것이며, 사회적 세계의 존재자와 진리를 발견하는 작업이 된다. 즉 사회적 세계에 존재하는 사회종의 발견과 이들의 상호작용과 결합을 분석하고 탐구하는 것이 사회과학의 임무이다. 이러한 주장을 옹호하려는 것이 위의 논의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종에 대한 실재론적 해석은 사회적 설명에 대한 실재론적 주장을 옹호하는데 기여한다.

사회현상, 인간현상이 설명보다 이해라는 주장은 딜타이 이래로 줄곧 제기되었다. 해석학은 인간현상과 사회현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실재론자들은 흄의 인과 개념이 아닌 즉 켈렐의 법

칙 개념으로 환원되지 않는 실재론적 인과개념을 제시하여, 경험주의자의 법칙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사회과학적 설명은 인과적 설명이라고 옹호한다. 밀러에 의하면 과학적 설명은 적절한 원인의 기술이다.(Miller, 1987) 사회종은 사회현상의 원인을 밝히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경우에 인간 현상인 사회현상은 이해를 동반한다. 사회현상은 심리 현상, 미적 현상, 예술현상, 해석적 상황 등등을 담고 있다. 사회종이라고 부르는 존재자는 자연종과는 달리 이들 현상이 압축되어 있는 이념적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예술적이거나 문학적, 해석학적 이해와 관련되는 것들도 가지고 있다. 사회종이 해석학적 요소, 이해를 동반하는 요소를 담고 있는 존재자라고 할 때, 사회과학적인 설명은 이 사회종들을 설명적이고 증거에 근거한(evidential) 귀납적인 일반화와 투사적 판단을 위해 선택하여 인과적 역할을 하도록 위치를 부여한다. 이 때 사회종이나 배경이론으로는 이미 이해되고 해석된 이론적, 사회적 환경이나 사회종들을 전제로 삼는다. 즉 이해는 전제 역할을 하고 이론의 인도 역할을 한다. 사회이론의 철학적 의미와 인간 이해를 위한 철학적 지위가 무엇인지를 해석학은 다룰 수 있고, 이해는 이 때 큰 역할을 한다. 이 때 이해란 해석학적 구성이다. 그러나 해석학적 방법이란 “의미 있는” 자료들(즉 믿음의 체계와 행위에 있어서 인간의 가치)에 적용된 가설연역적인 방법과 같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은 주관적으로 그치기보다는 보다 객관적이고 증거에 근거한 것이 될 수 있고, 동시에 해석학적인 논쟁과 탐구 속에서 순환적으로 그러한 결과를 이용한다(Føllesdal, 1979). 따라서 구성을 통한 이해란 것이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선택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작업은 객관적일 수 있고, 그 구성적 지식은 인과적 설명의 인과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우리는 역으로 그러한 전제가 잘못인지를 또한 반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설명과 이해의 논쟁은 종래의 경험주의자의 설명이론을 실재론적 설명이론으로 대체했을 때에는 새로운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설명과 이해는 서로 대체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사회현상에 대한 올바른 파악을 위해 서로 상보적인 역할을 한다.⁸⁾ 실재론적 입장에서 사회종의 해

8) 이 점은 사실상 많은 설명과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 기회에 다룰 것이다.

석은 이러한 논쟁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사회종이 도입될 때는 우리의 구성적 결과물이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와 독립적인 사회종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한 사회종들은 속성, 힘, 경향성(disposition) 같은 자기-조직력을 가지고 우리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관찰 불가능한 것으로 사회 현상을 야기하는 배경이 되며 동시에 인과적 역할을 한다. 사회종에 대한 실재론적 해석은 설명과 이해의 논의를 새로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해와 설명(인과적 설명)이 서로 상보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논증을 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앞으로의 주요 탐구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종에 관한 논의에서 바스카에 대한 언급은 조금 했지만, 바스카의 비판적 실재론의 공헌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다. 다음에 바스카의 비판적 실재론을 이 주제와 연결시켜 자세히 다루어 볼까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유경 · 김유신 · 박성현(2010), 「국가 정체성(National Identity)의 정립을 위한 이론적 접근: Korean Dynamism의 철학적, 역사적 의미에 대한 고찰」,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8권 2호, pp. 5-25.
- Anderson, Benedict(2006),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Revised Edition, London: Verso(originally published in 1991).
- Barthes, Roland(1973), *Mythologies*, selected and translated by from the French by Annette Lavers, Paladin(originally written 1957).
- Bhaskar, Roy(1979), *The possibility of Naturalism*, Atlantic Highland, NJ: Humanities Press.
- Boyd, R.(1979), “Metaphor and Theory Change”, in A. Ortony, ed., *Metaphor and Thought*,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81-532.
- Boyd, R.(1983), “On the Current Status of Scientific Realism”, *Erkenntnis* 19, pp. 45-48.
- Boyd, R.(1988), “How to Be a Moral Realist?”, *Essays on Moral Realism*, ed. Geoffrey Sayre-McCord, Cornell University Press, pp. 181-228.
- Boyd, I.(1989), “What Realism Implies and What it Does Not”, *Dialectica* Vol. 43, pp. 5-29.
- Boyd, R.(1991). “Realism, Anti-Foundationalism and The Enthusiasm For Natural Kinds”, *Philosophical Studies* 61: pp. 127-148.
- Devitt, M. and Sterelny, K.(1987), *Language and Reality: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Language*, MIT Press
- Eagleton, Terry(2000), *The Idea of Culture*, Wiley-Blackwell.
- Føllesdal, Dagfinn(1979), “Hermeneutics and the Hypothetico-

- Deductive Method”, *Dialectica* 33: pp. 319–336.
- Hacking, I.(1986), “Making Up People”, in E. Stein(ed) *Forms of desire* pp. 69–88, 1992 by Routledge New York and London.
- Hacking, I.(1990), “Natural Kinds”, in R. B. Barrett and R. F. Gibson (eds), *Perspectives on Quine*, pp. 129–141, Basil Blackwell.
- Hacking, I.(1991), “A Tradition of Natural Kinds”, *Philosophical Studies* 61 : pp. 109–126.
- Hacking, I.(1991b), “On Boyd”, *Philosophical Studies* 61: pp. 149–154.
- Kripke, S. (1972), *Naming and Necessity*, Harvard University Press
- Miller, R.(1987), *Fact and Metho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sillos, S.(1999), *Scientific Realism: how science tracks truth*,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Putnam, H.(1975), “The Meaning of ‘Meaning’”, *Mind, Language and Re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mith, A. D.(1991), *National identity*, Reno, Las Vegas: University of Nevada Press.
- Stein, E.(1992), *Forms of desire*, ed. by E. Stein,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Wendt, A.(1999),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